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영국 FSA 개편, 범유럽금융감독에 대한 영향력 축소 우려

- 지난 6월 영국 금융감독청(FSA)은 은행과 보험분야에 대한 감독은 영란은행(Bank of England)이 맡으며 나머지 증권분야에 대한 감독은 신설된 소비자보호청(Consumer Protection and Markets Authority)이 맡기로 결정한 바 있음.
 - FSA는 지난 6월 16일 금융위기로 인해 개별 피감독기관과 거시감독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감독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밝힘.
 - FSA를 해체하고 일부 역할을 은행의 지부형식으로 귀속시키며 신설되는 소비자보호청이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 등 금융시장에 대해 감독하기로 함.
 - 2012년 중반까지는 법규개정 등 필요한 절차가 완료될 예정임.
- 그러나 금융감독청의 분리가 범유럽금융감독체제 개편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내금융시장으로부터 유럽금융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.
 - 새로운 범유럽증권감독청은 개별 증권상품에 대한 거래를 감독하며, 금융활동을 제재할 수 있고,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이 커질 예정임.
 - 범유럽금융감독기구들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유럽뿐만 아니라 영국 금융시장의 거래는 범유럽금융감독기구들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짐.
 - 영국의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청의 분리로 인해 범유럽증권감독에 대한 대응력과 협상력이 저하되었다고 지적함.
 - 영국 금융감독청의 분리 및 악화로 인해 범유럽감독기구의 회의에서 영국대표가 다른 대표에 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위치에 처하지 못하며 신용을 얻지도 못해 협상력이 결여될 것이란 문제가 대두됨.
 - 특히 영국의 금융시장 규모에 비해 범유럽증권감독청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수준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영국을 대표하는 금융감독당국에게 권한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.

(FSA 6/16, Financial Times 6/17, 9/24, 10/5)